

과학자 중심의 記事가 좋다

□ 科學報道的 現況과 문제점

朴 星 來

〈韓國外國語大 교수·科學史〉

이 글은 지난 4월 29일 한국과학기자클럽이 주최한 「한국과학기자클럽 세미나」에서 발표된 것이다. (편집자)

한국 신문의 과학기술 관계 보도·논평은 지난 1세대에 걸쳐 꾸준히 개선되어 왔다. 1958년 3월 1일 〈한국일보〉에 독립된 科學部가 설치되기 얼마전부터 이미 우리나라 日刊紙에서는 전문 과학기자가 활동하기 시작했다. 이런 체제의 성장, 즉 科學部와 전문 과학기자의 등장은 한편으로는 과학기사의 질적 향상을 위해 크게 기여했으며 과학기사의 量的 증가를 가능하게도 해 주었다.

보기에 따라서는 지난 30년의 한국 신문의 科學欄은 상당한 진전을 보인것 같지만, 또 어떻게 생각하면 그다지 나아진 것이 적은 것 같기도 하다. 아직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과 기타 평소 느낀점을 말한다면 대강 다음과 같다.

◇ 무책임한 센세이셔널리즘

1960년대 또는 그 이전까지에는 적지않은「무한동력 장치」의 발명이 한국의 각 신문에 보도되었었다. 지금 우리들은 「무한동력」이란 있을 수 없음을 모두 잘 알고있다. 그러나 당시의 신문들은 다투어 이런 허황스런 기사를 신문에 내주었었다. 대중의 흥미에 맞춰 나가려는 상업지로서의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이제 무한동력과 같은 어처구니 없는 보도가 나가는 일은 거의 없어진 것같다. 그러나 흥미본위의 무책임한 센세이셔널리즘은 지금도 다른 방면에서 여전히 신문 과학란을 병들게 한다. 「건강」이란 이름아래 당근이나 도라지 값을 폭등·폭락하게 만드는 기사들이 그런 대표적인 예가 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암의 정복에 대한 과장된 뉴스는 80년대의 무한동력 이야기가 아니고 무엇인가.

신문을 통해 “암 치료에 개가”가 울린지 벌써 수 10번, 그래도 아직 암을 깨끗이 치료할 수 있는 길은 멀고도 먼 것같다. 모든 과학 보도에는 그 뉴스성과 더불어 그 한계성도 함께 짚어 두어야 옳다. 가령 어떤 새로운 발견을 보도할 경우 그것은 그 전보다 어떤 점에서 새로운 것이며, 그러나 그것이 실제 응용되기 위

해서는 어떤 문제들이 있는 지도 알려야 한다. 설령 암치료약이 정말 발견됐다해도 1명을 치료하는데 1억원 정도의 비용이 든다면 그것은 좋은 뉴스가 아니라 나쁜소식이 될지도 모른다.

◇ **첨단과학의 과잉보도**

과학은 시대에 따라 발달의 속도가 크게 다르게 나타나는 수가 있다. 따라서 이시대 세계적으로는 소위 “첨단과학”이라 불리는 遺傳工學이나 컴퓨터등이 각광을 받고 있다. 이런 과학발달의 “첨단”현상은 科學과 技術이 밀접한 관련성을 갖게되고 그것이 곧 사회경제적 발달과 불가분의 관계를 갖게된 지금 당연히 나타날 수 밖에 없는 일이다. 그러나 “첨단”현상은 科學史에서 언제나 있어 왔고, 또 그것은 시대에 따라서 달라질 뿐 아니라 사회 또는 국가에 따라서도 크게 다르게 나타난다.

따라서 우리 정부가 몇 가지 첨단분야를 외국의 흉내를 내어 우리의 첨단분야로 내세운것은 잘못이며, 그에 따라 덩달아 그런 분야에 보도의 앵글을 집중하는 언론도 잘하는 일은 못된다. 신문은 보다 균형잡힌 보도·논평자세를 유지해야 할 것이다.

◇ 「과학의 대중화」는 필요한가?

이제 첨단과학이나 첨단기술만이 아닌 모든 과학기술 분야에 있어 대중에게 과학기술의 내용을 상세히 소개하기란 이미 불가능한 시대에 들어왔다. 우리는 지금까지 과학기술의 대중화를 강조해 왔고, 이를 위해 신문이나 그밖의 매스컴은 어려운 과학기술의 내용을 쉽게 풀어 대중에게 소개해야 한다고 다짐해 왔다. 그러면서 언제나 현대과학기술의 난해성과 전문성을 들어 그 작업이 얼마나 어려운 것이냐고 自歎해 왔다.

1세대 전에 「찰스·스노우」는 〈두 개의 文化〉를 말하여 세계적 반향을 얻은 적이 있었다. 가령 어느 지식인에게 “세익스피어를 아십니까

”라 물으면 아마 그 사람은 얼굴을 불그락 푸르락하며 화를 낼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사람에게 “열역학 제2법칙을 아시나요?”라 물으면 아주 당당하게 “그런 것을 알 수가 있나요”라며 모르는 것을 정상으로 여길 것이다.

스노우는 이와 같이 文科와 理科로 날카롭게 분리되어 있는 오늘의 인류 문화가 지극히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그러나 그로부터 한 세대가 지난 지금 이런 文化的 異質化는 더욱 가속되고만 있으며 실제로 과학기술의 여러 분야를 고르게 이해하기란 누구에게도 불가능한 일이 되어 버렸다.

과연 이 時點에 와서도 여전히 신문의 과학기사는 어려운 현대과학기술 내용을 쉽게 풀어 소개하기에 급급할 필요가 있는 것일까? 어차피 불가능한 작업을 하는 척하기 보다는 현실적인 분야로 눈을 돌려야 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세계는 〈두 개의 文化〉가 아니라 수십, 수백개의 文化로 다양화되고 있고 이들 각 분야의 종사자들은 어차피 서로 대화가 불가능한 상태로 접어들었다.

英文學者가 컴퓨터를 필요로 할 정도까지 되었지만 실제로 그에게 RAM과 ROM의 구별은 아무 의미가 없다. 하물며 그가 熱力學 제2법칙쯤 모른다해서 전혀 이상하지 않은 것이 오늘의 세계다. 반대로 컴퓨터 전문기술자 가운데에는 「세익스피어」란 이름을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20세기초에만 해도 교양인은 모름지기 모든 분야의 첨단적 지식에 어느 정도 통달해 있어야 한다고 믿어져 왔다. 그러나 그런 “교양”의 개념은 이제 포기할 단계가 되었다고 생각된다.

◇ **科學言論의 새 地平**

과학이란 자연에 대해 인간이 찾아낸 체계적인 지식이다. 그 지식이 너무 다양해지고 전문화된 오늘 우리들이 교양인으로서 필요한 것은 科學知識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인간과 관련되는가 하는 부분이다. 그렇다고 과

학지식 자체가 뉴스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뜻이 아니다. 다만 초점을 그쪽에 둘 것은 깨끗이 포기하자는 말이다. 小粒子의 세계나 宇宙의 기원, 또는 生命의 원천이나 宇宙人에 대한 뉴스는 언제나 흥미있는 기사가 되겠지만 별로 재미없는 과학지식까지 끌고루 대중에게 소개하겠다는 사명감이나 科學記者로서의 召命의식은 버려도 좋겠다.

그 대신 과학이라는 지식보다는 그 지식이 인간·사회·국가에 어떻게 관련되고 있는가에 記事의 초점을 맞추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

이제 <과학의 대중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학과 사회의 연관성>에 대해 관심을 높이는 일이 科學言論의 과제가 될 것이다.

과학의 발달로 인해 인간의 思想은 어떻게 변하고 哲學은 또 무슨 영향을 받는가? 法律이나 社會制度는 또한 어떻게 바뀌어야 할 것인가? 예를 들면 환경문제나 컴퓨터 범죄, 시험관 아기와 安樂死등 우리는 너무나 많은 문제에 대해 끊임없이 우리 사회를 적응시켜 가야 할 판이다. 물론 科學教育과 科學政策도 한 없이 많은 言論의 소재가 된다.

당연히 앞으로의 과학 기사는 「보다 많은 사람의 등장」을 바탕으로 꾸며져야 할 것이다. 모든 다른 기사가 인물 중심의 내용인데 반해 지금까지의 과학 기사는 인간의 体貼는 뻔 내용이 대부분이다. “과학 중심의 기사” 보다는 “과학자 중심의 기사”가 더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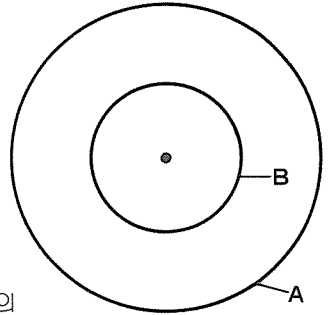
또한 이런 脈絡에서 볼 때 지금까지의 과학 기사는 그저 뉴스의 전달에 급급할뿐 新聞의 論評 기능에는 극히 미약했다는 점도 극복되어야 할 것 같다. 결국 우리 현대인이 모두 필요로 하는 것은 과학 그 자체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그것이 인간과 어떻게 관련되는가에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시대의 科學記者는 과학이란 범주에만 安住할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新聞사의 각 部署에 침투하고 간섭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길러가야 하지 않을까? 유능한 <전문 과학기자>는 바로 과학이라는 전문성을 뛰어 넘어 보

다 폭넓은 자기의 영역을 개척해 갈 때 생겨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잠깐 생각해 봅시다.

(문제 4) ——— (제한시간 4분)



LP판 레코드의 주변부의 홈 A를 한바퀴 도는데 그보다 반의 반경을 가진 B의 일주분과 비교하여 몇배의 시간으로 녹음할 수 있을까?



(문제 4의 해답)

일정한 회전수로 돌아가기 때문에 원의 둘레가 몇배의 길이이건 관계 없이 녹음시간은 같다. A에서는 B와 비교하여 2 배나 빠른 속도로 바늘이 반위를 굴러간다.